

『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』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
『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부터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해당 청원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의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구간 중 신규 역사를 포이사거리에 설치할 것과, 역사의 명칭을 ‘양재천역’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□ 포이사거리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이며, 인근의 양재IC 일대는 현재도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성을

고려한다면 신규 역사 추진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역입니다.

- 또한 서울시가 발표한 「글로벌 R&CD 혁신거점 양재 Tech-City조성계획」에 강남구 개포4동이 포함되어 있고, 2020년 서초구가 발표한 「첨단 R&D 육성 양재택비계획 재정비안」에서도 향후 양재 일대는 첨단 R&D 산업 거점으로 발전이 예상됩니다. 포이사거리는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.
- 또한 포이사거리에 역사가 설치되면 서울시가 2015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양재천을 지하철 역에서 내려 바로 걸을 수 있어, 서울시민의 양재천 이용에 편의성을 더하게 됩니다.
- 마지막으로, 설치되는 역사의 명칭으로는 이제는 없어진 “포이동” 이름을 따르기보다 “양재천역”으로 하는 것이 지역적 상징성을 더욱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-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민의 뜻이 담긴 청원을, 필요한 행정절차를

준수하여 제출하였습니다. 또한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통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청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